

## 우리도 족보에 올랐습니다



신인식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회장  
종달새전화도서관장  
isgs2007@naver.com

중증 시각장애인(1, 2급)은 문자생활의 불편, 이동의 불편, 그리고 주위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을 돕는다는 것은 실명으로 인해 어렵게 된 이 세 가지의 기능 회복에 관심을 두고서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활동에 역점을 두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이 세 가지의 짐을 무덤까지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동의 어려움과 문자 생활의 불편은 그들의 일생을 통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이동과 문자 생활의 재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조력이 평생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을 밝은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등대와 같은 사회 시스템입니다.

우리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는 「도서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1986년 5월 31일에 시각장애인 도서관 발전과 상호 자료 교환, 업무협력과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 단체와의 협력 및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그동안 10여 차례의 세미나와 100여 회 이상의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 분야의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도서관 발전이 사회 발전에 비례한다는 말과 같이, 시각장애인도서관의 발전은 시각장애인 사회의 교육문화의 발전, 재활복지의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누구도 시각장애인도서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 뜻 있는 몇몇 시각장애인들은 지팡이를 잡은 손이 얼어터지고 땀으로 부르트도록, 이곳 저곳 이분 저분을 만나 “시각장애인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도서관이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도서관과 대등한 수준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라며 눈물로 호소도 해 보고 동정에 기대어 보기도 했습니다만, 우리의 호소, 기대, 부르짖음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고 우리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또 하나의 장벽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개정된 「도서관법」에 의한 시스템은 이전에 비해 시각장애인도서관에 도움 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서관들은 아직도 예산의 70-80% 이상을 모금이나 자체 사업에 의존해

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이 좋아 관장이지, 이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 하루에도 수십번 포기할 생각을 갖는 관장들이 여럿 있을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도서관 종사자들은 조롱을 당해도, 시각장애인들의 참여의식이 부족해도, 정부의 무관심과 사회의 냉대로 인해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해도 20여년 이상을 오로지 '시각장애인도서관만은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버텨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가 법적인 근거가 없이도 종사자들의 일념과 당사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족보와 같은 것이 없이도 22년이나 버텨온 것은 기적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2008년 3월에 한국도서관협회의 산하단체로 인정받아 족보가 있는 단체로 다시 태어나, 가장 먼저 한 일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전국 종합 목록을 제작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시각장애인 도서관은 그 나름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도서관 환경이 일반 도서관들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시각장애인도서관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각장애인도서관의 진정한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와 정부는 장애인에 도와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하고서 도우면 된다는 막연한 명분과 사회 통념에 근거하여, 정보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도서관의 정책 수립을 부처 이기주의나 기득권 보호 차원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정책 수립은, 당사자인 시각장애인들의 목소리와 시각장애인도서관인들의 호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독특한 문화도 유지되고 일반 공공도서관과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아가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각장애인도서관들의 각종 서비스와 설비, 운영 노하우를 국가의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실용적 사고도 요구됩니다. 시각장애인도서관의 발전은 국가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서관 발전이 우리나라 전체 공공도서관의 질을 선진화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라 여겨 전체 도서관계의 협력을 바라는 바입니다.

20년 이상을 족보도 없이 이런 저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지금까지 버텨 온 시각장애인도서관들도 이제는 국가와 도서관인들로부터 지원과 인정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함께 발전해 가야 진정한 선진화가 됩니다. 선진화를 위해 변신해야 합니다.

「학교도서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시각장애인도서관법」도 제정될 수 있도록 뭉쳐서 노력해야 합니다.

현 시대를 '정보화 시대 혹은 지식정보화 시대' 라고 하는데 정보소외계층인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단어들도 아직도 다른 나라의 얘기처럼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뭉치고 단결하여 노력하면 시각장애인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우리에게 맞는 도서관들이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정보소외계층이라는 말도 사라지고 '정보화시대, 지식정보'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려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화로 가는 길을 넘어 세계 일류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점에서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기대가 실현되는 시대를 열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하고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힘쓰며, 특히 소외계층이 희망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감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사회는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